

내년예산 군민과 미래 중심

순창군, 올해보다 10.2% 증가한 3782억원 편성

순창군이 '인구 4만', '관광객 500만 명', '예산 5,000억원'이라는 비전달성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예산을 전년대비 10.2%가량 증가한 3,782억원을,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집중 편성한다고 밝혔다.

순창군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259억원(7.9%)이 증가한 3,522억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세출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로 군의 각종 정책사업에 필요한 가용재

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복·유사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지방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전심의 및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복지 순장을 위해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과 마을택시 대상마을을 확대한다.

여성 친화도시 건설과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출산장려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등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과 의료원의 의료장비 추가구매 예

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종합문화예술화관 건립 등을 위한 기금 조성, 미술관과 도서관의 상설 프로그램 확대 지원, 대학원학 축하금, 고등학생 해외 탐방지원 등 문화와 교육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해 문화와 교육이 숨쉬는 순창을 만들 계획이다. 청년창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앙로 지중화 사업, 스포츠 마케팅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도 꾀한다.

순창군은 주요사업에 대한 각 부서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순창군의회에 제출, 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가동

거점소독·비상상황실 운영... 선제적 대응 총력

임실군이 겨울철 전염병인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제역과 AI는 겨울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주요 전염병이다.

군은 과거 발생이 많았던 위험시기인 지난 10월부터 오는 2019년 2월까

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질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겨울철 철새 도래시기와 맞물린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농가의 그늘막 설치·재정비, 사료통 주변 생석회 도포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하천과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4개 팀의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소독을 실시 중이다.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 금지에 대한 지속적 지도·홍보와 함께 일제소독의 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제역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철차, 가금농가의 입식전 방역실태 점검 등 입식 전 신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화예찰을 강화하고 농가의 적절한 사육관리 및 입식관찰을 통한 이상축 발견 시 읍·면, 군상황실 또는 1588-4060으로 즉각적인 신고를 하도록 홍보·당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질병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구제역과 AI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청정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구제역·AI의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임실군, 농촌여성 웰빙 제과·제빵 교육 인기

임실군은 이달 27일까지 지역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웰빙 제과 제빵 취미반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농촌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주 화요일 성수면에 위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교육실습장에서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도너츠, 보리식빵, 파베기 등 7종의 제과,

제빵 기초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가족에게 건강한 빵을 직접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지역여성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웰빙 제과·제빵 교육은 이번이 4회차로 이미 60명이 실습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심민 군수는 "제과·제빵 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개선과 소규모 가공 창업과도 연계해 자립경영할 수 있는 계



임실군은 제과 제빵 교육을 실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김치통만 가지고 오세요'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10~11일 개최

임실군의 겨울철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주부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린다.

임실군과 임실엔 양념마을 사업단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성수면 소재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에서 '제3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노래자랑이 열리고, 농특산물판매장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배추절임

매뉴얼 교육 등 원물의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김장페스티벌에 예산을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참가 희망자가 몰려 크게 흥행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며 "아쉽게 참가하지 못한 희망자들을 위해 행사 이후에도 양념가공·김치체험장에서 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남원시는 이달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 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 변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 변조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강원구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지장을 받는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8일까지 공공비축미 매입

순창군이 7일 팔덕면 태촌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각 읍 면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16개소에서 21회에 걸쳐 2018년산 공공비축미(건조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 총 매입물량은 7만 4,579포대(산물벼 2만 4,253포대, 건조벼 5만 326포대)로 매입품종은 신동진 품종만 가능하며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연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정산금(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새로이 품종검정제가 실시되므로 품종 혼입 등으로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비축미 출하시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농업대학 졸업식이 열렸다.

남원시, 명품농업대학 졸업식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6일 남원농업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제9기 명품농업대학 졸업식이 열렸다.

복숭아반, 친환경농업반, 농식품반 등 3개 과정에서 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농식품반은 농산물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시험에 29명이 응시해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다.

남원명품농업대학 학장인 이환주 시

장은 "수입농산물과 고품화로 농업, 농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환중 소장은 "농업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된 농업CEO 육성을 위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농업전문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